

# 敬天·修道攷

- 종교적 수행법, 시대적 생활훈 -

林 泳 暢 \*

目 次	
I. 緒言	3) 대순사상의 敬天
1. 종지의 신앙방법	III. 信行의 결합체인 修道
2. 상제신앙이 곧 경천	1. 수도의 개념
3. 심신통일의 총결합-修道(수도)	2. 안심·안신에 입각하여
II. 敬天의 上帝신앙	3. 상제봉대(奉戴)의 신심으로
1. 天의 개념	4. 도통의 목적아래
1) 자연과학으로 본 天	IV. 신세기를 지도할 敬天·修道
2) 동양사상의 天	1. 시대와 함께하는 내용과 표현
3) 대순사상의 天	2. 사회윤리와 세계평화
2. 敬의 개념과 실천	3. 신세기와 경천사상
1) 대상에 따른 경의 개념	4. 신세기와 수도, 수행
2) 종교적 신앙의 敬	V. 結語

## I. 緒 言

대순사상의 교리로서 종지(宗旨)의 후속으로 신조(信條)가 있는데 그 신조가 4개의 강령과 3개의 요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여기서 종지와 신조의 개념 차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종지는 '대종(大宗) 곧 근본이 되는 주지(主旨)'라는 말로 풀이되고 신조는 '신앙하는 또는 신앙해야 할 조목'이 된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지는 논리적으로 종교의 원칙론이 된다고 하면 신조는 신앙의 실천적 방법론이 된다고 볼 것이다.

\* 전 경남대 교수, 종교학 박사

그러나 종교 그 자체의 정의(定義)가 백수십가지나 되고 있기 때문에 종지와 신조에 대한 개념도 어떤 특종 종교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대순진리회에서 규정한 종지란 한 종교단체의 취지로서의 차원을 넘은 '우주 대중(大宗)의 大旨(대지)'인 것이고 신조는 '人界(인계)전체의 필수적 조목'이라고 규정할 만한 것이 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 1. 종지의 신앙방법이 신조다.

이 신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도인이 신앙 수행하는 조항인 바 이 또한 종지를 漢詩(한시)의 작법인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연구와 대비해서 말한 바 있지만 이 신조의 4강령 또한 이 작시법(作詩法)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종지는 道(도)의 體(체)가 되고 신조는 도의 用(용)이 되어 앞의 것은 사상의 주체인 원칙이 되고 뒤의 것은 활용하는 신앙의 방법, 곧 실천 수행의 조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인들의 신앙태도도 그렇지만 일반 종교학자나 대순종학의 연구자들의 태도 또한 종지의 한가지나 신조의 한가지를 단독적으로 연구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위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서로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종지 한 신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종지의 음양합덕이 있기 때문에 신인조화가 생겨나며 그 신인조화로서 해원상생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발전한 것이 도통진경이라는 구경처(究竟處)가 성립되는 것이니 이 4개의 종합된 종지를 실천, 신앙, 신행하는 조항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4강령의 신조인 것이다.

이것 역시 종지의 경우와 같은 인과관계의 논리를 갖는다. 첫째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또한 안정되는 안심·안신을 이룬 다음 신

1) 일본 동경대학출판부 발행의 종교학대사전을 보면 종교의 정의가 150여개나 된다고 설명해있다. 그러나 광의적인 정의가 있다고 해도 어떤 특정 종교에는 부적당한 것일 수 있기때문에 각 종교는 자교 종지에 맞는 정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양대상인 양위상제를 숭모, 신앙, 공경하는 것이 수도의 총결정이라는 이러한 범우주적 상관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 2. 上帝信仰이 곧 敬天사상이다.

경천에 대한 것을 대순진리회 요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sup>2)</sup>

이 요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상제를 받들어 공경하되

- 자나 깨나 잊지 말고
- 상제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 마음 속에 새겨
- 공경과 정성으로 모신다

는 몇가지 사항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 경천의 사상은 시천주(侍天主)로 표현할 수 있으니 곧 상제를 내몸에 모시고 믿고 공경하는 것이 이 강령에서 가르친 경천의 진의가 아닌가 한다.

과거 몽매하던 시대에는 우주의 대기권(大氣圈)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하고 그 하늘이 비와 이슬을 내려서 만물을 길러주는 것에서 인격화한 하늘님으로 믿고 섬겼지만 그런 인간의 상상속에 등장하는 허상(虛像)이나 가상(假像)의 신은 21세기의 과학문명 앞에 다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닐 것이다.

오직 무극 곧 태극의 도(道)와 이(理)로서 생기하는 음양 양의의 합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도며 땅의 도요, 또 인간의 도인 것이다. 이 무극과 태극의 도를 주재하시는 구천 · 옥황의 양위상제가 계시다는 것이 대순사상의 우주관이며 상제관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조 제3강령인 경천사상이란 과거시대의 공소(空疏), 허망(虛妄)하던 관념적인 대기권에의 숭경(崇敬)이 아닌 무극과 태극의 화천으로 지상

2) 대순진리회 요람 七, 신조 四강령 수도부분, p.15

에 현현했던 양위상제에게의 경배, 신앙이란 것이 대순사상의 종지, 신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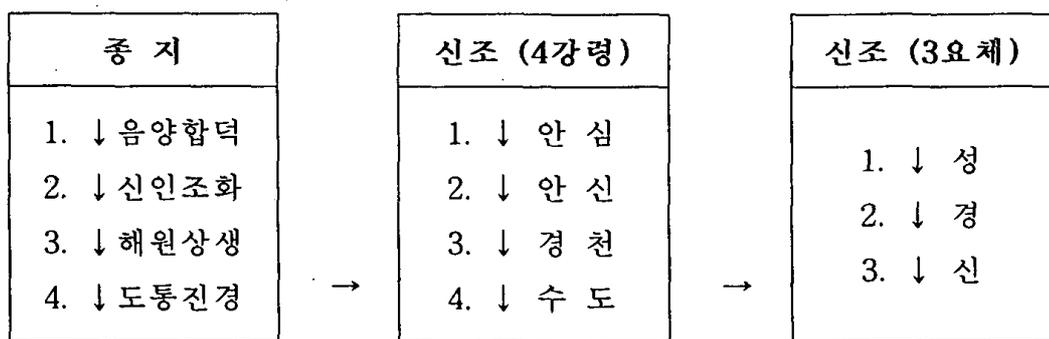
### 3. 심신 통일의 총결합 - 수도

신조 4강령의 마지막 강령을 수도라고 했는데 위의 종지가 그러하듯 이 강령 또한 끝의 네째번은 앞의 세가지 강령의 총결론적인 종합적 명제라 할 것이다. 하기는 위의 세가지 신조 뿐 아니라 대순사상 신앙자에게 있어서는 곧 신앙하는 생활 전체가 수도인 것이니 수도생활 전체가 종교신앙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안정하고 몸을 안정한 후에 양위상제를 공경 예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도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4강령이 확실하게 교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요람에서 해설한 것도 역시 이러한 취의(趣意)의 것이라 할 것이다.

뒤에 본론에서 좀더 객관적 사고가 있겠기에 서론에 긴 말을 늘어놓지 않는 반면 다음과 같은 도해로서 종지와 신조의 상관관계를 밝혀 두려한다.



음양합덕에서 신인조화를 이룰 수 있고 신인조화에서 해원상생, 그리하여 도통진경의 뜻을 세우면 먼저 안심이 소용되고 안심후에 또한 안신을 이룬다. 거기서 경천의 심신을 가다듬어 수도를 하되 성·경·신으로 할 것인바 정성스럽게 하면 공경심이 생기고 또 그에서 전정한 신심이 우러나는 것이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이론체계가 확실하고 수행절차까지 명확한 상관관

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Ⅱ. 경천(敬天)의 상제신앙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는 경천사상과 또 그에 따른 예배의식을 이행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는 신(神)을 신앙하는 종교가 아닌 불교같은 종교도 천(天)은 인정하고 있고<sup>3)</sup>, 또 천(天) 대신 불(佛)을 예배하는 것이 일반종교의 경천사상이나 의식에 별차이가 없는 것같이 느껴진다.

종교인의 경우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느냐’는 말을 곧 잘해서 하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아서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잘못을 범했을 때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참회, 반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하늘(天)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이처럼 인간이 경외하고 또 숭앙하였던가를 먼저 천착해 보는 것이 타당한 이론이다.

### 1. 天의 개념

#### 1) 자연과학으로 본 天

과거 상고시대부터 동·서양간 인류는 하늘을 두고서 3층천(三層天)이라고도 하고 9층천(九層天)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과 추측에 의한 것뿐이었다. 그것이 후세에 천체망원경을 통해서나 물리학의 발달로 얻는 해답, 말하자면 자연과학의 체계적인 대답은 이러한 것이 된다.

天 곧 하늘이란 일정한 영역을 가진 지구와는 다른 하나의 대기권일 뿐이다. 이것을 기상관측에서는 하늘의 상태란 것을 구름의 상태로 구별하는 것

3) 불교는 그 교리(실상은 인도 전래의 사상이다)에서 33천이 있다.

이니 구름을 하늘의 일부라고 할지 아니면 하늘에 떠있는 기체라고만 볼지 그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sup>4)</sup>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늘의 상태를 30종으로 구별하지만 그 기본은 10종으로 구분된다. 말하자면 하층권·중층권·상층권을 각각 셋으로 나누어 9층으로 하고 그 뒤에 무기권(無氣圈)이 있다고 구별한다. 그러니 3층권, 9층권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 2) 동양사상의 天

동양의 天사상도 그 시초는 자연계에 있는 천공(天空)이 대상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 우주관, 세계관은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관념적으로 하늘위 바로 신이라는 개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개념이 차츰 체계화할 때 신은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근원이 되며, 우주를 형성하는 근원적 힘(force)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거기서 다시 확대된 천관(天觀)은 天이 인간계의 만사를 지배하고 육성시키기도 소멸시키기도 한다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 고대 중국의 천명(天命)의 관념이든지 인도사회의 천칙(天則)의 관념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이 천을 인격화해서 천부신(天父神)으로 숭앙하게 되고 신앙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은대(殷代)의 갑골문(甲骨文)을 가운데 天으로 판독되는 글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이 다만 가시적(可視的)인 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天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후에 형이상학의 철학적 관념이 결부되어 이(理) 곧 로고스(logos)의 천리(天理) 천도(天道)의 관념이 첨가되고 조화(造化)<sup>5)</sup>의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무튼 본고가 天사상을 구명(究明)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줄거리가 되는 사상을 간략히 기술할뿐 상세한 고찰은 피한다. 그러나 이러

4) 세계대백과사전에 의함, 태극출판사.

5) 조화 : 유대민족의 신화 속에 나오는 야웨(yahwe)가 천지를 창조했다느니 하는 치졸한 창조설이 아니고 우주의 이기(理氣) 또 그로서 생기는 5행을 좌우하는 제조자(製造者)로서의 조화주의 관념이 생겨난다.

한 천사상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편년체(編年體)가 아닌 관념의 용어별로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주례(周禮)에 나오는 상천(上天)이란 말을 위시해서 노(魯)나라 주공(周公)이 지은 사서(辭書)인 아아(爾雅)에서는 계절적으로 명명하는 등 학자들이 자기 사견대로 풀이한 것도 있고 해서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발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우리가 고서(古書)에 있는 말이면 덮어놓고 큰 고증인 것 같이 여기는 일이 허다한데 냉정한 평안(評眼)으로 봐서 취신할 가치가 없는 것도 허다하다. 냉철한 이지(理智)적인 사고가 아니고 덮어놓고 훈고(訓故)적인데 빠져서는 안된다고 나 스스로 경계해둔다.

그러한 天의 구별을 간추려 본다

창천(蒼天) : 봄하늘을 뜻하는데 이순(李巡)의 설과 곽박(郭璞)의 설<sup>6)</sup>

호천(昊天) : 여름하늘. 곽박은 햇빛이 강력한 것으로 이순은 원기가 광대한 것으로 본 설

민천(旻天) : 곽은 민(愍)의 뜻으로 하되 이는 연민한다는 뜻이 아닌 문장의 뜻으로 풀이함

상천(上天) : 이순은 음기가 위에 있다는 뜻으로, 곽은 가장 높다는 뜻으로 풀이함 (구양설(圭陽說)은 여름을 旻天, 가을을 昊天으로 바꾸어 설함)

황천(皇天) : 높이가 임금이므로... 형병(邢昺)의 설

이후 서경(書經)에 황천상제(皇天上帝)라는 명호(名號)가 나오고 시경(詩經)에는 호천상제(昊天上帝)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더 간단하게 제(帝), 상제(上帝)라는 칭호로 등장하는 곳도 많이 있다. 또 5제(五帝)라고 해서 창(蒼) · 적(赤) · 황(黃) · 백(白) · 흑제(黑帝) 등으로도 표현이 된다.

아무튼 여기서 상천(上天)이니 하는 것에서 상제(上帝)라고 하는데서 인격화(人格化)한 천(天)의 모습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6) 李巡, 郭璞 - 중국상고시대의 학자들.

이 상제의 칭호에 송(宋)대에 천(天)을 옥황(玉皇)으로 호칭하는 도교(道敎)의 명호와 유교적인 상제가 합해서 옥황상제(玉皇上帝)라는 새로운 합성어의 명호가 성립되어 후세에 더 많이 사용되며 또 그렇게 통용되기에 이른 다.

### 3) 대순사상의 天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만한 사실을 대하게 되니 그것은 대순사상에서 부르는 양위상제의 명호가 위에 소개한 天의 역대의 명호를 집대성해서 다시 요약한 명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무극(無極)과 태극(太極) - 사실은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지만 - 의 뜻을 겸한 주신(主神)으로 구천상제(九天上帝)와 옥황상제(玉皇上帝)의 양위(兩位)를 봉대(奉戴) 신앙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구천상제는 요약한 말이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寶化天尊)이 갖춘 칭호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 피하고 다만 현대의 과학적으로나 과거 동양의 관념으로 9층천 최고에 계신 상제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이론상 타당한 명호라고 생각한다. (중국 도교에서 같은 명호를 사용한 것을 임용(仍用)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상(不詳)하지만 이 명호를 설정한 도주 조정산(후에 도인들이 옥황상제로 봉대하였다)의 시안(始案)으로 오늘까지 전해져서 도인(道人)들의 신앙과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도조(道組) 증산(甞山)을 구천상제로 모신 정산 또한 도인들에게서 옥황상제로 받들게 된 이 증대사실이 또한 우연한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대순사상에서의 경천사상이란 막연하게 天에 대한 숭경(崇敬)이 아니라, 도화인신(道化人身)한 증산·정산 곧 구천·옥황 양위상제에게의 신앙과 예배인 것이다.

이 사실을 서구류의 지식이나 또 종교관 같은 것으로서는 풀리지 않는 신화상 명제인 것이니 서구인의 종교경전은 유대교·기독교 신·구·정교의 공통된 것이 구약성서(old testament)인데 거기에 나오는 야웨(YAHWE)는 유일신이다. 꼭 최고라는 뜻이 아닌 유일무이의 뜻을 지니는데 그것은 출애굽

기(구약27권 가운데 하나)에 ‘나 이외 다른 신은 없다’고 해서 다른 신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신관을 가진다. 그러면서 우주의 최고신이며 주재신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동양사상, 그 가운데서도 대순사상과는 천지현격(天地懸隔)의 차가 있으니 대순사상에서의 신앙신인 양위상제는 유일신은 아닌 최고신이고 조화신(창조는 아니다), 주재신이다.

말하자면 야웨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신, 제우스같은 그리스의 신, 로마의 쥬피터, 일본의 아마테라스 그 밖에 천상신, 지상신, 심지어 귀신, 도깨비까지 다 인정해주는 다신(多神)적 신관을 가지는 신관이 대순사상의 신관이다.

따져보면 야웨나 아마테라스 같은 신은 양위상제가 주재하는 우주 그 가운데도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일본을 맡아 있는 수령(守令) 방백(方伯)급의 신일 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 증산이나 정산같은 자연인이 어떻게 상제가 되느냐고 다른 측면에서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도인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이가 있고 그저 비논리적이고 신화적인 비현실적인 이론으로 억지 대답을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론은 명확하다. 신이란 이스라엘의 신처럼, 또 동양사상의 신처럼 자연현상을 가지고 인격화한 상상으로 된 신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란 다 신명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살아있는 신명이 곧 인간이라는데 전제 아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죽은 이를 신위(神位)로 모시는 신관이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인데 이것이 대순사상의 신관이기도 하다.

그러니 인간은 살아있는 신인 반면에 신의 대다수는 죽은 인간들이다. 살아서 아무도 능가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물이 신계에서도 최고위에 군림할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라는 논리적 결론이 성립된다.

그런데 구천·옥황의 양위상제는 무극 곧 태극의 화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말하자면 도(道) 그 자체가 인간으로 화해서 나신 분들이니 그런 분이 상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정말 무극·태극의 도를 받아서 태어났느냐고 또 반문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나 심지어 1초1목까지도 다 도로써 난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분들이 우주만큼의 기(氣)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좁쌀 알맹이만큼이라도 받았으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다시 간추려 말하면

- 하늘이란 자연현상의 대기권(大氣圈)으로 9층으로 구성되며 그 위에 한 층을 더하면 10층이 된다.
- 일찍 인간들은 하늘을 인격화해서 한울님, 천주, 황천등으로 불렀지만 상제란 말로 정착이 되었다.
- 하늘도 무극 곧 태극의 조화 속에 천·지·인 3극의 하나로 성립되는데 과거 선천시대의 천존(天尊)사상의 우위가 후천에 와서는 인존(人尊)사상으로 바뀌어지니 이는 구천상제께서 교시하신 사상의 혁명이다.
- 우주의 원초인 무극과 태극의 기(氣)가 도(道)로 화(化)해서 인신으로 나타난 분이 구천·옥황의 양위상제인 바 두 분은 도(道)를 통하여 곧 일체가 된다.
- 신명이나 인간 모두가 무극과 태극의 기로써 조화(造化)된 존재인 바 이 무극·태극의 조화를 주재하며 바로 무극과 태극이신 어른들이 구천·옥황의 양위라는 이론이다.
- 신이 곧 인간이며(神卽人) 인간이 곧 신이니(人卽神) 신가운데 최고신(神中神)은 사람 가운데 최고인 사람(人中人)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반인 곧 도인이외의 인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구천·옥황의 양위상제를 다만 인격위(人格位)로서만 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고(至高)한 신격위(神格位)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천하에 낮도깨비 같은 가상(假像), 허상(虛像)의 상상신(想像神)을 믿는 종교가 허다한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런 사이비신(似而非神)을 광신하는 추태가 속출하는 것은 새밀레니엄을 맞는 인간계의 비애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무극과 태극의 정기(正氣)로 세상에 출현했다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도를 편 후에 다시 구천의 위에서 우주를 주재하시는 양위상제를 받들어 신봉하는 신앙자 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 할만하다.

## 2. 경(敬)의 개념과 실천

우리가 현실생활 가운데서 아무뜻도 없이 또 뜻도 잘모르고 쓰는 경(敬)자가 붙는 말들이 참 많이 있다.

어떤 이가 연설을 시작하면, 첫머리에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하는 말을 먼저 한다. 또 경의(敬意)를 표한다느니 경근한 마음이라든지 부모에게 공경하여야 한다든지 허다한 말에 접한다.

이렇게 많은 말들에 접하고 또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1) 대상(對象)에 따른 경의 관념

먼저 옛날 같으면 군주, 지금은 국가민족에게 대한 경의 개념으로 경충(敬忠)이란 말이 있다. 충성을 하되 공경스럽게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군주를 공경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효경(孝敬)이란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되 공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애(敬愛), 애경(愛敬)이란 말이 있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상대의 인격을 존경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요즈음 X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그러한 사랑이 아니어서는 안된다고 권계(勸戒)해야 할 것 같다.

경근(敬虔)이니 경신(敬愼)이니 하는 말은 대인관계에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수도에 절절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외(敬畏), 외경(畏敬)이란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다. 여기에 한가지 독특하게 경원(敬遠)이란 말이 있다. 존경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여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어에 있는 ‘귀(鬼)와 신을 공경하여 멀리한다(좋은 뜻으로 독신(瀆神)이 되지 않도록)’는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것이 오용(誤用)되어 표면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이 하되 속으로는 덜 좋아한다고 하는 것으로 통용

---

7) 논어 爲政 : ‘使民敬忠以勤’

되고 있다.

다음에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경신(敬神)이란 말이 있어 신을 공경한다는 말로 쓰인다. 아무튼 경(敬)자가 소용없는 것 같이 된 오늘의 시대가 되었지만 종교인에게 경(敬)자를 빼고 나면 윤리적 내용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

이 경(敬)의 사상을 종교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3경사상이랄 수 있다.

天은 황천상제(皇天上帝)며 호천(昊天)상제니까 공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지만 사람에게의 친화, 그 친화의 경지를 올라선 경(敬)으로서 대하라는 것은 곧 시천주(侍天主)로 한울님을 속에 모시고 있어서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데서 생긴 사상이다.

또 세상의 모든 물건이 우리를 키워주고 보호해 주고 지켜주니 모든 물질이 또한 하늘과 같다. 그래서 그 고마운 물건들 하나하나를 공경해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극한 종교적 태도가 아닐까해서 공감을 지니게 된다.

경(敬)에 대한 대상은 너무 많다. 하늘과 땅, 사람 곧 천지인 3극(極)이 그 대상이며 하늘과 땅의 표상인 부모(父母), 부모의 부모인 조부모, 스승(師), 먼저 세상에 난 인생의 선배, 곧 나하신 어른들, 국가의 원수와 자기가 소속된 기관, 회사, 단체의 어른이 모두 공경의 대상이다.

그러나 꼭 높은 이, 훌륭한 이에게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불교설화의 상불경(常不輕)보살처럼 눈에 띄는 모든 사람이 다 공경의 대상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하기는 대상에 따라서 경의 개념이나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우주간에 제일 큰 경(敬)의 대상은 천(天) 곧 상제인 것만은 확고부동한 사실이다.

## 2) 종교적 신앙의 경(敬)

천에 대한 공경심 곧 경천사상이 종교적으로는 관념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식(要式)의 절차와 의례가 생겨나니 이것이 제천의 의식화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동양과 서구나 중동쪽은 다르게 나타나니 가령 기독교 같은데서는 하늘이 (구약성서에 유대인의 민족신이던 야웨가 신약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세계인의 하느님으로 승격(昇格)이 된다.) 자기의 의사를 어떤 특정인에게 계시(啓示)한 신탁(神託)으로 족장(族長)이 되든지 또 전문직 사제(司祭)가 되든지 하여 그 사람이 민중을 대신해서 제사의식을 거행한다.

그러나 동양은 그와 달라서 하늘의 의탁을 받아서 경천(敬天)의 제천(祭天)을 총명 예지한 자에게 천명을 내리되 민심을 얻어 있는 자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이 상이하다.

이 대명(大命)의 천명(天命)을 받은 자가 곧 글자 그대로 천자(天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을 주재자(主宰者)로 할 적에 상제(上帝) 또는 제(帝)란 말로서 표시하는데 여기에는 인격과 사상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로써 숭경(崇敬)의 이념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상제가 조감(照鑑) 응감(應鑑)한다는 말 같은 데서 천의 인격관념은 증대해진다.

주례(周禮)에 5제(五帝)란 말이 나온다. 이 5제는 인제(人帝)가 아니고 천제(天帝)를 말하는데 이것은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의 5행과 동서남북중앙(東西南北中央)의 5방의 기화(氣化)를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5색의 빛깔을 붙여서 창제(蒼帝), 적제(赤帝)등으로 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 5제가 독립한 5위의 상제라는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6천, 5천의 용어는 후세에 내려오면서 소멸되고 오직 1천(一天)의 상제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경천의 제의(祭儀)는 오직 상제 1위에게 대해서만 봉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 하늘에의 숭경으로 비롯한 제천의식은 후에 천신(天神-상제 이외의), 지기(地祇), 인귀(人鬼 또는 人神)에게까지 이르게 되니 경천의 제천사상은 이렇게 발전해 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여(夫餘)에서는 영고(迎鼓), 예(濊)에서는 무천, 고구려(高句麗)에서는 동맹(東盟)등으로 불리는 제천의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징이 있다.

國中大會 連日飲酒歌舞(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 몇몇일을 술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sup>8)</sup>

이렇게 낙천적으로 명랑하게 하늘에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8) 一然의 三國遺事, 金富軾의 三國史記에 나와있는 말인데 연일 술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밤낮을 지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친선, 화목을 꾀들인 것이다. 그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엄숙한 분위기의 제천의식보다 하나의 국민축전으로 승화시킨 것에서 한국인 독특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종교적으로 뿐 아니고 창생인 일반 인민은 천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으니 모든 건국의 창업주가 거의 공통되게 내어거는 슬로건이 나는 '천제(天帝)의 아들이다'한 것이었으니 그로써 인민은 승복(承服)을 하고 수장(首長)되는 왕(王)은 천을 대리하는 위치에서 권위를 지니게 된다. 그에 따라서 제천의식은 종교적인 동시에 왕실의 의식으로 정착되며 따라서 정교일치(政教一致)의 근거가 되는 장점도 지니게 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경(敬) 또 나아가서 경천(敬天)의 사상과 제천(祭天)의식은 각민족의 발생과 함께 그 연원적 의의를 지니고 발전해 내려온 만큼 경천사상을 빼놓고서의 종교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하기보다 바로 경천사상의 제천의식 자체가 종교로 승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순사상에서도 신조로서 신행의 규범을 세우는데 경천하는 마음가짐으로서 대순의 수도를 하지않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수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 3) 대순사상의 경천

신조 제3목(第三目)으로 제시한 경천이 바로 뒤에 나오는 넷째번의 수도에 선행되어야 할 요목임을 우리는 과거 선민들의 사상과 실천에서 다시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대순의 도인, 대순의 사도(使徒)들이 지닐 경천사상은 어떠한가 하며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론적인 명제가 되는 것이다.

먼저 대순사상에서의 경천의 대상, 다시말하면 신앙의 대상, 그에 따라서 어떤 신관을 갖느냐는 것이 이 논제의 관건(關鍵)이 된다.

그것은 더 말할 것없이 구천·옥황의 양위상제인 것이다. 그 양위상제가 지금까지의 황천상제로서 후에 옥황상제로 정착이 되는 그 옥황상제의 위호를 정산도주가 지니게 되고 그 위에 구천상제의 위호를 증산도조가 또한 가

지는 것, 이 난해한 종학의 명제는 본 논총 제1집, 제2집에 필자의 '대순사상의 신관고(神觀攷)'<sup>9)</sup>에서 어느 정도 고찰을 하였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순사상의 경천대상은 구천·옥황의 양위상제며 그 양위상제가 곧 도인내지 만인간이 봉대해야 할 천제(天帝)라는 것을 보충 해설하려는 것이다.

서구 외래종교에서 태초<sup>10)</sup>에 야웨라는 신이 천지 우주를 창조했다는 우화 같은 신화때문에 생긴 사상이 새밀레니엄을 맞는 오늘의 자연과학의 시대에도 통용되고 그것을 믿는 인사들이 있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다.

대순사상의 우주관에서는 오직 무극 곧 태극의 로고스(Logos)로서 우주와 삼라만상이 조화(만들어지고 화<化>해지는 사상<事象>)된다고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을 믿는다. 상제는 그런 원리의 주재자며 지배자로서 태극의 음양5행을 공사(公事)로서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능을 가진 이들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론은 이 논고가 다룰 영역이 아니기때문에 상론(詳論)은 피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을 다 신(神)으로 보는 관점에서 신중신(神中神)인 구천·옥황의 양위가 우주의 최고 주재자인 것을 정신세계에서 확신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정신적인 세계가 마음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런 명제를 논할 자격도 또 필요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니 여기에 종교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마음의 눈에 트인 대순의 도인들이 경천의 대상으로 양위상제를 모시고 기원 기도하고 공부(工夫)하는 작법(作法)대로 하는 수도의 삼매경(三昧境)은 드디어 도통진경을 이루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도인들로서 가득한 지구세계가 5만년 청화(淸和)세계가 된다는 것을 대순의 교의는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여기에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도인들 가운데는 수도공부후에 난치의 병이 자연 치유되었다는 사람도 허다하게 볼 수 있고

9) 대순학술논총 제1집·제2집에 있는 립영창(林泳暢)의 '대순사상의 신관고'에서 대순사상에서 구천·옥황 양위의 상제를 봉대하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고찰했지만 이것으로서는 아직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금후 이문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10) 태초(太初)란 서교가 들어와서 만든 조어(造語)인 바 대순사상으로는 태초니 창조니 하는 말은 쓸 수 없으니 태고(太古)造化(造化)란 말이 타당하다.

영통의 상태에서 제신(諸神)과도 접해서 의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신이(神異)로운 기사(奇事)도 허다하다.

이런 현상을 정신병적 상태의 환각, 환청사상(事象)이라고 폄(貶)하기에 앞서 이의 정체를 구명해 보면 알 수 있으니 허령(虛靈)에 접하든지 저급신(低級神)에 접신이 되는 사람도 있지마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미신, 사도(邪道)라고 용훼할 수 없는 종교적 차원의 정신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 Ⅲ. 신행(信行)의 결함체인 수도(修道)

#### 1. 수도의 개념

수도(修道)란 쉽게 말하면 '도를 닦는다'는 말인데 먼저 어떤 것이 수도인가 하는 개념을 찾아 얻은 다음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 넘어가기로 하는 것이 차례일 것 같다.

수도의 차례(次第)를 학도의 학교교육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알기 쉬워진다. 왜냐하면 수도나 수학(修學)이 다 공통된 닦을 [修]의 작용이기 때문이니 이의 대비가 곧 수도 신앙적 단계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한단계씩 올라가듯이 수도생활 신앙의 단계에도 적용되는 것이니 무슨 사업에도 계획에 의한 추진이 있듯이 수도사업에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도를 닦는다는 말이다. 학동의 수학(修學)이 학업을 닦는다는 말과 닦는다는 뜻은 같다. 그래서 대순의 도인들이 닦아가는 과정(過程)을 간추려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 (1) 왜 대순의 신봉자가 되었는가? 대순에 입도한 자각이 먼저 소요된다.
- (2) 전경을 읽고 공부하여 상제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우며, 종지·신

조 · 목적 · 훈화 · 수칙을 암송할 만큼 독송한다.

- (3) 회관에서나 가정에서 입에 주문이 떨어질 때가 없이 염송한다.
- (4) 본격적인 법방(法方)에 따른 수도공부에 참가하여 시학(侍學) · 시법(侍法)의 공부절차에 따른다.
- (5) 도통을 하는 목적은 놓치지 않고 지녀야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6) 남 잘되게 하는 사회봉사나 성금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과열된 허령도수에 빠지지않게 하고 또 냉담하여 종교심의 냉각됨을 경계하는 일 등 도의 눈이 열리고 지혜가 밝아지는데 따라 더욱 정진하는 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은 말의 종교가 아닌 실천위주의 수도가 되고 종교가 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 2. 안심 · 안신에 입각하여

이 안심 · 안신은 지난 번에 고찰한 것이지만 세상만사 마음의 평안과 몸의 평안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대순의 수도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니 그러기에 도주 정산이 신조나 강령의 1, 2를 안심 · 안신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닥치는 마음의 괴로움, 슬픔, 그리고 번민하고 그 번민에서 온갖 잡념과 망상이 생기는 그것이 인생살이다. 혼자의 사색 가운데서도 생기고 현실생활에서도 생기며 대인관계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하루도 몇 차례씩 당하는 것이 쌓여 마음의 불안, 현대어로 스트레스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순의 위대한 진리 속에 사는 도인은 그래서 안된다. 비단 대순사상뿐 아니라 무슨 종교사상이든지 하나의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그 종교의 수도요령과 방식에 따라 실행, 수행하는 것이 본분인데 다만 그 진리가 좋다. 그 진리를 신봉한다고만 하고 수도의 실행 곧 수행이 없으면 그것은 그 종교를 아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신심(信心) 속에 먼저 안심하는 마음과 안신하는 육체로 수도에 정진하는 것 그것이 도인의 철저한 신조가 되어야 한다.

### 3. 상제봉대(上帝奉戴)의 신심(信心)으로

그러면 이제 안심·안신의 가라앉은 심신을 가다듬은 다음 어떻게 수도해 갈 것인가를 요람(要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하여야 한다.<sup>11)</sup>

이 본문은 상제를 모시는 마음의 원칙을 위시하여 수도의 방법론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추출(抽出)해 보면

- 마음과 몸을 침착하게 잠심한다.
- 상제를 가까이 모신 정신으로
-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한다.
- 영통(靈通)의 통일이 목적
- 공경과 정성의 일념을 자각(自覺)
- 끊임없이 잊지않고
- 지성으로 봉축한다.

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준비 위에 상제를 가까이 모신 듯하여 다음 수도하는 방법까지를 간명(簡明)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제 본 항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상제봉대의 신심(信心)을 주로 고찰하려 한다.

이 상제를 가까이 모신다는 말을 가장 요약해서 종지로 삼은 곳이 있으니 그것은 수운(水雲)을 교조(敎祖)로 하는 천도교가 바로 그것이다.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sup>12)</sup>

11) 대순진리회 요람 七. 신조의四강령 p. 13

12) 천도교 총부편 용담유사, 이 시천주(侍天主)는 기도주라고도 하여 대순진리회와

여기에 나오는 시천주가 바로 천주 한울님(상제)을 내가 모시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인여천(事人如天)<sup>13)</sup>이란 천도교의 교리가 생겼다. 인간이 하늘을 모시고 있으니 그 하늘을 모신 인간을 한울님같이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서교(西敎)의 기독교에서도

내가 아버지(하느님)안에 있고 아버지(하느님)가 내 안에 있다.<sup>14)</sup>

고 한 것도 유사한 말씀이다.

천도교에는 수도의 단계에서 해탈(解脫) 대도견성(大道見性)이 되면

- (1) 시천주(侍天主) : 한울님과 통하는 길을 얻음=허광심(虛光心)
- (2) 양천주(養天主) : 한울님의 기쁨을 얻는 단계=여여심(如如心)
- (3) 각천주(覺天主) : 한울님과 합일되는 <天人合一>단계=자유심(自由心)<sup>15)</sup>  
(여기에는 불교적인 용어와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 밖의 모든 종교, 불교 같으면 각 종(宗)에 따라서 수행하는 의궤(儀軌)가 있어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지만 선종(禪宗)의 경우만 간단히 소개해 본다.

그 선종도 여래선(如來禪)<sup>16)</sup>, 조사선(祖師禪)<sup>17)</sup>으로 나뉘지며 묵조선(默照禪)<sup>18)</sup>, 공안선(公案禪)<sup>19)</sup>으로 나누어진다. 또 선과는 이름을 달리해도 역시 선의 하나인 지관(止觀)<sup>20)</sup>을 닦는 천태종 등 법화계(法華系)의 종(宗)들이 있다.

복부의 연단(煉丹)을 장려하는 선도(仙道)는 또 그대로 약물을 병용하는 수련(修鍊)법이 있으며 수신 제가의 실천윤리를 위주로 발전한 유교(儒敎)의

증산교 각 교단이 염송하고 있다.

13) 事人如天은 제2세 교주 海月의 가르침이다.

14) 신약성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5) 개벽사 편 우리의 길, 林雲吉 저, 1996년간 p. 152 이 수도의 단계가 천도교의 공식 발표인지는 미상이다.

16) 여래선 : 석가모니때부터 전통적으로 전래되는 선

17) 조사선 : 각 조사들이 자기의 의견을 가한 방법의 선

18) 묵조선 : 그냥 명상만 하고 있는 선

19) 공안선 : 공안(公案)은 곧 화두(話頭)를 앞세우고 하는 선

20) 지관 : 천태대사가 지(止) 곧 정(定)의 상태를 얻어 거기서 어떤 명제를 관(觀)하는 경지를 개발하는 법

경우조차 후세에 도교적 영향을 받아 격물치지(格物致知)<sup>21)</sup>의 궁리(窮理)에 치중하여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을 고취(高趣)하게 된다.

기구(祈求=祈禱)면 그로서의 훌륭한 의식인 것을 그에 만족하지 않은 가톨릭교의 수도원에서 피정(避靜)을 해서 명상(冥想)을 통해 관(觀)하는 관상(觀想)의 수련을 하는 것을 보아서 모든 종교가 이름은 명상, 묵상, 전나(禪那)등으로 했든 간 또 그 방법은 달라도 수심(修心) 정기(正己)의 수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하나 예를 들 수도 있지만 번쇄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아무튼 대순사상에서는 수도의 앞에 먼저 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그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의 핵심인 요점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는 기본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도인의 수도 수행이 공부하는 때 뿐 아니라, 행·주·좌·와(行住坐臥) 곧 길을 가나 머물어 있으나 앉았든지 누웠든지 늘 상제를 모시고 있다는 생각과 또 생활 가운데 그 생활 자체가 또 하나 수도라는 것을 잊지 말것이니 그래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sup>22)</sup> 평상시의 마음이 곧 도(道)라고 한 말이 생겨난 것이다.

#### 4. 도통의 목적 아래

도통(道通)이란 말은 ‘도가 통해진다’는 뜻이고 통도(通道)라고 하면 ‘도를 통한다’ ‘통해진 도’라고 해석이 된다.

요람에도 영통(靈通)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이 통해진다’는 뜻이며 일반이 자주 쓰는 통령(通靈)이란 말은 ‘영을 통했다’는 뜻이 되어 도나 영이 주어(主語)가 되어 있는 것과 목적어(目的語)인 것으로 그 의의는 천지현격으로 달라진다.

대순사상의 도통, 영통은 ‘시천주’에서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이라고 기원하는대로 지기(至氣) 곧 상제의 기운 그 하늘의 지극한 기

21) 격물치지(格物致知) : 대학 4장에 致知는 在格物이란 말인데 사물(事物)을 구명(究明=格)하는 것이 지(知) 곧 사물의 극의(極意)에 이룬다는 말

22) 平常心是道 : ‘어떤 것이 도입니까’ 물으니 남천이 ‘평상심이 곧 도라’고 답했다는 故事(양인 모두 宋代의 선사(禪師)들)가 있음

가 크게 내려주소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통해지고 영이 통해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정당하다.

한문의 기초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 도통을 도를 통했다고 번역하기 쉬운데 이것을 여기에 경계해 두는 노파심을 말해둔다.

그러면 대순사상에서는 종지의 제4강(第四綱)이 도통진경이 되어있고 신조의 제4조 또한 수도가 되어있어 도통을 이루자면 수도를 해야된다는 수행의 인과관계를 더 확실하게 알수 있다.

그러면 이 신조 4강령의 해설을 설명한 요람에 그 목적을 영통에 두고 있지마는 그 앞과정을 면밀히 이수(履修)하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기에 그 과정을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요람에서 말하는 단전(丹田)을 연마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단전연마가 어떤 것인지를 고구해본다.

선도(仙道)에서 부우대사(孚佑大師)라고 부르는 여동빈(呂洞賓)<sup>23)</sup>의 황학부(黃鶴賦)에서

奧矣 最上一乘 乃無作而 亦無爲 還丹七返 因有動而 方有定(깊도다 하나의 최상승(가장 높은 길)은 짓는 것도 아니며 또 하는 것도 아니다. 단(丹)을 돌려서 일곱 번 돌이키면 움직임이 있고 바로 안정이 있다.<sup>24)</sup>

이런 말이 있다.

여기에 있는 환단(還丹)이 곧 연단(煉丹)의 뜻인데 그 단(丹)의 9환7반(九還七返)법이 연단의 법이다. 요람에서 단을 연마한다는 것은 곧 선(仙)의 연단법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만 기해(氣海) 단전(丹田)<sup>25)</sup>의 호흡법을 조절하고 연마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호흡법은 유·불·선이 모두 비슷한 것은 호(呼=내어 뱉는 숨)는 입으로 내어 뱉는 것이 누에가 실을 뽑듯 가늘게 느리게 하고 흡(吸=내들이 마시는 숨)은 급하게 굵게 하는 것이다.

23) 여동빈(呂洞賓) : 宋代 도교의 도사, 오늘까지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24) 9환7반(九還七返) : 단전을 태아(胎兒)의 포태에 비해서 그 기운이 점점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말한다.

25) 기해·단전(氣海丹田) : 배꼽 아래 부위에 기해, 그 다음이 단전이다. 이 위치의 측정은 본인의 오른쪽 식지(右食指) 둘째마디로서 한다.

거기에 앉는 방법은 궤좌(跪坐=꿇어 앉는 앉음)든 가부좌(跏趺坐=평좌로 앉는 것)<sup>26</sup>든 정한 법방대로 할 것이며 눈은 감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반눈으로 아래를 보는 법도 있고 또 눈을 그냥 뜬 대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지도 하는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참선의 형식이든 정신통일의 형식이든 어느 종교의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게 되면 배꼽 아래 단전(丹田)이 단단(團丹)하게 뭉쳐져서 굳어지니 선도에서는 그것은 태아(胎兒)가 어미의 자궁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대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적인 목적론인데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영통 곧 도통의 결과 하나 뿐인 것이다.

이 연단(煉丹) 곧 단전(丹田) 단련(鍛鍊)의 법은 그 자체의 효과만 해도 심신에 많은 비익(裨益)이 있다.

첫째 호흡이 골라져서 숨이 차고 헐떡거리는 일이 없어진다.

둘째 명문3초(命門三焦)<sup>27</sup> 곧 상초(上焦), 중초(中焦), 하초(下焦)의 운행이 조화되어 혈액순환이 잘되고 요골(腰骨)부위가 튼튼해져서 척주(脊柱)에 힘이 생겨서 입자세(立藉勢), 좌자세(坐藉勢)가 바로 잡혀 몸에 위엄이 생기고 장기(臟器)가 정제(整齊)되는 효능이 있다.

셋째 정신이 통일되고 집중력이 더해져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강해지고 생리적으로는 수면을 잘하게 되고 식욕과 성욕도 강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체성이 강해져서 인존(人尊)사상을 체인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넷째는 투시력(透視力)<sup>28</sup> 천리안(千里眼)<sup>29</sup>등의 초능력적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잠재의식(潛在意識)이 현재의식(現在意識)의 앞에 표출되어 과거사를 돌아볼 수도 있고 미래사를 예견(豫見) 예지(豫知)할 능력이 발하게 되는 일도 있다.

26) 가부좌(跏趺坐) : 홀(單) 가부좌는 한국식 평좌인데 반해 결(結) 가부좌는 양쪽 발을 서로 꼬아서 앉는 방식

27) 명문3초 : 상초·중초·하초라고 하는 기혈의 부위를 말하는데 가시적 처소가 없기 때문에 후세까지 이 정체(正體)를 파악하기 힘들다.

28) 투시력 : 껍질 속에 든 물건을 안보고도 아는 힘

29) 천리안 : 멀리 몇10리 밖에 있는 일이나 찾아오는 사람을 알수 있는 힘

그러나 대순사상의 수도 목적은 이런 심령과학자나 잡술영통자의 소기교(小技巧)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잘못 이런 경지에서 만족을 느끼든지 하는 일은 대도(大道)가 아닌 잡술자(雜術者)의 유희 같은 것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주의하여야 한다.

유교의 경우에 안심입명(安心立命)이란 말과 불교의 경우에 대각(大覺)이니 정각(正覺)이니 하는 말처럼 대순사상에는 도통(道通)이란 말을 많이 쓴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모든 민족종교가 거의 도통이란 말과 함께 그 도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그 예를 전경에서 찾아본다.

궁을가(弓乙歌)에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sup>30)</sup>

공자는 72명만 통례(通禮)시켰고 석가는 5백명을 통케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풀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上才)는 7일이요, 중재(中才)는 14일이요, 하재(下才)는 21일이면 각기 성도(成道)하리니 상등(上等)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用事)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sup>31)</sup>

도는 장차 금강산 1만 2천봉을 옹기하여 1만 2천의 도통군자로 창성(昌盛)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도창(上有道昌) 중유태인(中有泰仁) 하유대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다.<sup>32)</sup>

먼저 도조 증산은 수운(水雲)의 궁을가(弓乙歌) 속에 나오는 도통군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반도에 도통군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조하여 종도(從徒)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더 북돋워주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곧 도인들 모두 도통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오늘에도 교단의 간부들 입에서는 도통군자가 나와야 하는데…,

30) 전경, 권지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선인들부터 도통군자가 많이 날 것이라는 연원적 언사로서 인용한 듯하다.

31) 전경, 교운 1장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도통성도에 대한 성격을 구별해서 말하였다.

32) 전경 예시 45절에 있는 말씀인 바 1만 2천 도통군자의 출현이 오늘의 도인 모두 기대하는 소망이다.

꼭 나오고야 말 것이다. 그것도 1만 2천 도통군자라는 도조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을 본다.

도조 증산은 과거 종교 교조들의 실례를 들어서 도통군자의 출현을 예시하고 있으니 옛글에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고 했듯이 수운이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고 증명한 말을 받아서 ‘금강산 1만 2천봉을 응기해서 1만 2천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는 예시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 꼭 1만 2천명(1만 2천 1명도 아니고 1만 1천 999명도 아니라는)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도통군자가 나온다는 뜻이니 이로서 수도 공부하는 도인들에게는 심령상 큰 격려가 되고 또 교단적 기대도 크다 할 것이다.

이 도통의 내용, 곧 개인의 근기(根器)와 자질에 따른 구별을 상·중·하의 재질(才質)로 하고 있으니 다시 말씀을 소개하면 상등 재질의 인사는 7일만이고 중등 재질은 2·7인 14일만 하등재질이라도 3·7이 21일만이면 영통의 성도, 도통을 이룬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공효의 능력도 말씀하고 있으니 상등인은 만사를 생각대로 운용할 수있고 중등인은 운용하는 대상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는데 하등인은 내용을 깨달아 알기는 알지만 운용은 할 수가 없다고 하여 공부하는 사람, 도통한 사람의 그릇(器)<sup>33)</sup>에 따라 능력의 구별이 있는 것을 가르쳤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명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만사를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도통, 그 성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대지(大智) 대혜(大慧)의 절정인 도통이란 무슨 어떤 경지의 영통이며 대각(大覺)인가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이 도통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봐야할 지 여기 대해서도 교단의 공적인 발표가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인 바 다만 몇가지 관점에서 공약수(公約數)적인 어떤 해답만 추출(抽出)해 보는 것이다.

33) 사람의 됴됨을 한자로는 흔히 根器라 쓰고 있다.

### (1) 종지 등 교의의 효통(曉通)

도가 통했다는 그 자체부터 그렇지마는 영통 도통한 이는 마음 눈 [心眼] 으로서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지는 우주관, 인생관이 정립될 것이다. 이런 종학의 중요명제가 일만 인문과학적인 측면에서 인식되는 것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체인(體認)되지 않아서는 감히 도통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기는 비단 음양합덕만이 아닌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 이론과 함께 체험을 통해서 체득된다는 것은 고귀한 체험이니 그것만으로도 도통의 경지라고 이르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 (2) 영통한 도통진경의 경험

이렇게 영통한 사람은 인계(人界)뿐 아니라 천지인(天地人) 3계의 일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명료하게 머리에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많은 신들의 내력과 함께 그 일부를 접견하고 나아가서 우리 인간계의 일도 10년을 내어다 보고 100년을 주름잡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후(死後) 문제를 알고 내세관(來世觀)에 대한 주관이 확립되리만큼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 (3) 자유자재의 영능(靈能)

이런 경지는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악귀를 축출한다든지 하는 능력까지 얻는다. 이러한 사람은 가위 신인(神人)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이상 몇가지 단계로 도통의 경지를 고구해 봤지마는 이것을 현대적인 안목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폄하를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래 종교가 과학의 범주내에 들지 않고 과학 또한 종교의 범주 속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선까지만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상(事象)을 굳이 결부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에서 위에서 말한 종교적 견지 아닌, 또 과거시대의 의고(依古)적 내용 아닌 현대적인, 그것도 가장 첨단적으로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는 눈으로 대순사상을 보는 것과 일반인에게 보급하는 문제는 상반된 면이 있기 때문에 장(章)을 따로하여 다음에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대적이고 현실적 생활인적인 면에서 고구하는 것이 대순사상을 대중적으로 보급(普及)시키며 세계에 전파하는 공효를 지니지 않을까 생각 하는 바이다.

#### IV. 신세기를 지도할 경천·수도

어떤 종교사상이나 철학사상이 어느 일정한 시기 또 어떤 지역에만 소요(所要)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시기가 지나든지 그 장소를 떠나면 시해(屍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여 생명을 지닌 사상들이 있다.

그 가운데도 늘 역사에 앞장서서 새로운 역사를 지도하고 창출하는 것이 대순사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세계를 구원하고 인류를 재생하는 원리와 원칙이 있으며 가장 정신적으로 바르게 살고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대순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한다. 19세기 서구의 르네상스라든지 산업혁명이 그것이며 20세기에는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등장이 있었지만 역사와 세계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퇴출되고 말았다. 종교 또한 그러해서 생겼다가 없어진 교단도 있고 생겨서부터 빈사상태로 되는 유아무야의 것이 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에 무극대도로 출발한 대순사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한국의 역사와 함께 밀착이 되어 조국의 피압박 때는 그와 함께 하고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비약할 때는 또 그와 함께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 국사와 교단사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말에 처한 오늘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과 PC통신의 발달은 물론 제반 산업의 발달로 종교를 위시한 정신문화의 정신적 공간이 축소되어 가는 것이 실정인데 여기에 맞추어 대순사상은 어떠한지 냉정한 비판을 가한 후에 거기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

열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대순사상을 연구하는 결론적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 1. 시대와 함께 하는 내용과 표현

새 세기의 종교는 새 세기와 함께 하는 내용과 형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과거의 전통을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전통적인 것을 현대에 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양을 복제하고 송아지를 복제하다가 인간을 복제하게 된 금세기의 과학은 실로 인간을 경악하게 하는 바가 큰 것이다. 여기에 하늘 위에 인간이 생겨 지지도 않던 태고부터 어떤 노인이 하늘 위에 있어서 우주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우화적(寓話的) 종교는 21세기의 과학문명 앞에는 발을 붙이지 못할 시대가 될 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다.

무극·태극에서 음양·양 의가 있어서 그 음양의 합덕으로 우주의 만유가 조화(造化)되고 생성된다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근원이 아닌가 말이다.

종교란 정신문화에 속하는 것이어서 자연과학과는 부문이 다르지마는 이것 또한 음과 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가 작용하는 것도 다 이 원리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신인조화만 해도 그렇다고 할 것이니 우리 인간 모두의 속에 있는 내재신(內在神)을 생각하면 곧 정신과 육체의 통일 결합되는 의미도 되고 내 외계신(外界神)을 생각하면 타력(他力)과 자력(自力)의 합일(合一)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오늘의 자연과학과 굳이 배치되는 사상도 아닌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순사상을 보급시키려면 고등교육을 받은 현대인이 수긍할 수 있는 현대적 체계와 현대적 용어로서의 해석, 해설이 소용되는 것이다.

## 2. 사회윤리와 세계평화

대순사상이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는 윤리 도덕은 해원상생(解冤相生)이라고 할 것이니 이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사랑과 동정, 유교

의 인(仁)과 의(義)라는 막연한 사상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사상이나 공산주의라는 경제이론도 이 원리 앞에서는 무색해질 것이다.

가정에서 또 이웃에 사회생활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반세기 동안 담을 싸 놓고 있는 남북간에서도 이 해원상생의 원리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교의라고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코소보에서 체첸에서 동티모르에서 일어난 인간살육의 참상이 무엇으로 해결될 것인가. 병력이나 외교로 또는 정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현실의 표면적인 면이고 원리의 원칙적으로 해원이 되어 상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인류의 평화가 이 해원상생 말고 무엇이 더 나은 원리가 있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때문에 세계 만국민이 대순의 도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보다 더 좋은 평화의 원천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다.

현대에 필요한 교의를 현대적으로 해설해서 현대인에게 투여(投與)하는 일, 그 포덕의 요결(要訣)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종교진리를 못 듣고 못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도 한탄도 없어지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청화5만년의 세계인 것이다.

### 3. 신세기와 경천사상

대순사상에서의 경천사상이 양위상제에게 향한 신앙인 것은 재언이 필요 없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하는 것은 신세기를 맞는 우리 국민, 더 나아가서 세계인을 상대한 대순사상의 보급에 역점을 두고서의 논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어떤 종교사상을 논하면서 과거의 훈고(訓誥)적이고 현학(銜學)적인 방법을 지극히 기피하는 것이니 그 언석(言釋)적인 해설로서는 대성(大聖)의 전체사상을 핵심이 아닌 변죽밖에는 울리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대순사상의 경우에도 양위상제의 큰 뜻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추궁하는데 힘을 보태고 또 과거의 사소(些少)한

사실이나 언설(言說)에 힘을 넣기보다는 미래와 세계를 내어다보는 대국적(大局的)관점에 주의를 치중(置重)하고 싶은 것이다.

오늘의 사람들은 하늘을 공경하기보다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산다. 이때의 하늘이란 말은 일단 특정인물을 지칭하는 신격(神格)이 부여되기 전 원초(原初) 그대로 개념적으로 관념하는 천(天)이랄 것이다.

더 좁혀서 천도(天道)라든지 천리(天理)라든지 로고스(logos)라든지의 의미를 지닌 천(天)관념만은 일반인에게 꼭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관념에서 차츰 인격신(人格神)을 선택하여 하늘에 있다는 상상속의 우상신(偶像神)을 믿든지 올바른 선택으로 대순사상의 양위상제를 믿든지 하는 일은 일단 뒤로 미루어 두고서의 이야기다.

오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과학만능, 물질유일의 물신(物神)주의에 빠져 있고 컴퓨터가 신(神)의 대용품이 되고 신을 부인하고 마음의 세계, 죽어서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천(敬天) · 경신(敬神)의 사상이 절대 필요한 것을 느낀다.

이러한 유물론의 황금지상 화려한 향락과 사치 그리고 본능 그 가운데도 관능적인 자유방종을 인생훈(訓)처럼 생활하여 그에 따른 범죄의 다양 다기한 모습은 현실생활이 신세기적으로 발달한 반비례 현상으로 계수(計數)의 눈금이 가속도한 원시적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꽃이 피었다가 열매나 맺고 떨어져 가면 그뿐이라는 것과 같이 세상에 나서 애나 하나 낳고(안 낳는 것이 차츰 더 유행하지만) 죽으면 그 뿐이라고 하는 지극히 비하(卑下)된 인생관이 빚어내는 현대의 비참한 정태(情態)에 뜻있는 이들의 걱정이 무고(無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경천사상이 최고의 치약(治藥)이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음양조화를 이해하고 신과 신의 세계를 이해하면 오늘의 과학문명의 발전과 함께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순사상이 세기에 앞장서서 세계를 향해 올바른 경천사상을 선도(先導), 고양(高揚)해야만 할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다.

#### 4. 신세기와 수도 · 수행

대순사상의 수도법방은 독특한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 수도공부의 설석(設席)을 도주 정산(鼎山)의 영적 체험으로 시행한 실례를 다음 전경의 예문을 통해서 상고한다.

도주께서 이 해 11월에 도인들의 설석을 명령하였다. 공부는 시학(侍學)과 시법(侍法)으로 구분하고 각 공부반은 36명으로 하였다. 시학(侍學)은 5일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15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45일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했다. 시법(侍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降式)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 인원은 시학원(侍學員)·정급(正級)·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도인으로 구성하였다. 시학원은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올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였다.<sup>34)</sup>

이 시학(侍學)의 수도공부와 또 시법(侍法)의 공부는 도인의 신앙상태와 등급을 측정하는 공부와 성과를 대강(大降)하는 지기(至氣)를 받드는 봉강(奉降)의 의식(儀式)으로 표현하기까지 하는 유일 독특한 방식으로 대순사상에서 자부하는 수도의 형식이다.

여기 따른 상세한 것은 도인들이 더 잘 알 것인 바 아무튼 대순사상의 목적으로 하는 도통의 수도니만큼 심혼을 주입(注入)하는 법방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도인으로서 입도이후 수도의 과정으로 이행할 부분이며 일반인 모든 국민이나 또 세계인에게는 현대에 맞는 수도법으로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현대인 그것도 각종 직업에 바쁘게 달려야 하는 현대인이 생활 중에 어떻게 대도(大道)를 닦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이 생활 즉 도(道)라는 관점에서 보아 무시할 수는 없으니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법방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튼 아무 규제(規制)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현대의 젊은 세대, 그들에게 호기심을 심어 주어 심경을 자극시키고 또한 자각을 이루어서 비록

34) 전경 교운 제2장 62절의 인용인데 여기에는 개인수도에서 차원을 높여 대중수도, 대중도통의 공동체를 이상으로 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간단한 마음공부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에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다음에 논의할 과제로 남겨놓고 이·도통에 대한 고찰을 마치려 한다. 그러나 필자의 이러한 제안이 대순사상의 근본 목적은 아니며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대순이 정한 수도 법방에 의한 공부로서 완성되는 대도의 도통 그것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다.

## V. 결어(結語)

즐고를 맺는 자리에서 이 신조라는 것이 종교인의 신행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의의가 지대한 것을 다시 말해둔다.

어떤 종교에서는 신조를 '신앙하는 조목'이라고 해서 그 종교 자체를 나타내는 곳도 있다. 기독교의 경우가 그것이니 사도신경(使徒信經)<sup>35)</sup>이라고 해서 신앙의 조목조목을 신에게 고백하는 형식으로 된 것이 그 좋은 실례가 된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는 종지(宗旨)를 우주의 우두머리가 되는 종교사상으로 규정하고 신조는 신행하는 도인이 닦아가는 과정(過程)의 조목으로 규정해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옥황상제로 봉대하는 도주 정산이 무극대도를 개창(開創)할 때부터의 역사적 전통이므로 여기에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만큼 종지를 믿는 도인들이 그 종지에 따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는 신조의 4강령과 3요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하루 24시간에 1분 1초도 이 신조와 떠난 생활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明)나라 왕양명(王陽明)이 주장한 지행합일(知行合一)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니 아무리 종지에 대한 이론을 깊이 알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 지식에 신조의 행(行)이 없다고 하면 그 아는 지식이 아무 소용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한가지 생각할 것은 4강령의 신조 안심, 안신, 경천, 수도란 것이 비단 도인들의 신행요건일 뿐만 아니라 보천하(普天下) 만인간(萬人間)의 인간

35) 사도신경 : 기독교의 신조를 하나하나 설정하고 신자가 신앙을 맹세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

도(人間道)로서의 생활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불안·초조·번민하는 현대인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오늘의 스트레스와 고혈압을 치유하는 최고의 양약이며 일산화탄소에 혼탁한 공기와 각종 농약의 화학약품에 절여 있는 식품을 마시고 먹고 사는 현대인이 그것을 극복할만한 체력과 건강의 안신(安身)이 없으면 그날로 파멸할 것이다. 그런 안심·안신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 그 노력 가운데도 종교적인 힘, 말하자면 대순사상을 신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제의 가호(加護)로서 건전 건강한 심신(心身)을 유지할 것이 보장된다.

그러니 바로 경천(敬天)의 실천으로서 인간에게서 초월한 은택(恩澤)을 입어 가정이 화평하고 사회가 평온하며 학업의 발전사업의 융창 등 개인적 이익과 함께 국가 민족전체 나아가서는 지구세계전체가 활기있고 화평속에서 국제간에 서로 유대를 공고히 하는 신세기의 신세계를 이룩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경천의 신조 아래 수도·수행하는 실천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인류의 행복이니 위에서 말하듯이 구염불(口念佛)로 입안에 증얼거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상례에 벗어나서 온갖 부정과 비리(非理), 사기와 협잡, 남속이는 일로서 정치하고 경제하고 물건 팔아먹고 식품을 만드는 모든 국민이 수도·수행까지는 못된다 하더라도 최저한의 인간의 수칙(守則)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안심·안신·경천·수도가 인류사회의 영구한 수칙(守則)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태극출판사 세계대백과사전  
진각종 해인행 한국밀교학논문집  
李弘植 國史大사전 한국출판사  
服部宇之吉 詳解漢和大辭典(日) 富山房  
中村元 新佛教辭典(日) 誠信書房  
宝蓮閣 한국불교대사전  
車相轅 四書五經 신한출판사  
安富榮 한국종교의 원류 장문사  
여익구 민중불교입문 풀빛  
天台大師 摩訶止觀 天台宗  
服部宇之吉 東洋倫理綱要(日) 富山房  
釋宗演 無門關講釋(日) 平凡社  
東京大學出版部 宗教學大辭典(日)  
천도교총부 천도교요의  
천도교총부 천도교 교리와 사상  
仙學硏究會 玄武經과 呂洞賓仙法  
金京昌 하나님말씀  
洪凡草 증산교개설  
林泳暢 甌山神學개론  
한국성서협회 聖句大辭典  
李重盛 天地開闢經  
甌山思想硏究會 論文集 1-22 外 其他